



왕이란 무엇인가? 왕은 어떠한 권한과 역할을 가졌는가? 조선시대의 왕은 천명을 받은 초월적 존재였으므로, 그 권한 또한 막강하였다. 『시경』詩經의 「소아」小雅 ‘북산’北山 편에 나오는 “普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이라는 말은 나라 안의 모든 땅과 백성들이 모두 왕의 땅과 신하라는 뜻이다. 왕의 통치권은 그만큼 국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스를 수 없는 권력이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조선 시대에 왕권은 법으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조선시대에 왕에 대한 법 규정이 없었던 것은 왕의 위상과 권한이 황제에 비해 낮아서가 아니라, 감히 위상과 권한을 문자로 표현하여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일차적으로 ‘왕’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왕이 이같이 무한한 권한을 행사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본문 중에서



값 28,000원



ISBN 978-89-7199-461-0
ISBN 978-89-7199-421-4 (세트)

신화사
아름다운
이야기

03

조선 왕실의 일상 1

조선의 왕으로 살아가기

심재우
한형주
임민혁
신명호
박용만
이순구
지음

돌베개

신화사
아름다운
이야기

03

조선의 왕으로 살아가기

한국학중앙연구원 | 심재우 · 한형주 · 임민혁 · 신명호 · 박용만 · 이순구 지음

조선 왕실의 일상 1



돌베개



03

조선 왕실의 일상 1

조선의 왕으로 살아가기

2011년 11월 30일 초판 1쇄 발행

지은이 심재우·한형주·임민혁·신명호·박용만·이순구

펴낸이 한철희

펴낸곳 돌베개

등록 1979년 8월 25일 제406-2003-018호

주소 (413-756)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도시 532-4

전화 (031) 955-5020

팩스 (031) 955-5050

홈페이지 www.dolbegae.com

전자우편 book@dolbegae.co.kr

책임편집 윤미향

편집 이현화·김진구·이경아·소은주·권영민·조성용·김태권·김혜영·최혜리

디자인 이은정·박정영

제작·관리 윤국중·이수민

마케팅 심찬식·고운성·조원형

인쇄·제본 상지사 P&B

©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이 도서는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AKS-2007-BB-2001).

ISBN 978-89-7199-461-0 04900

978-89-7199-421-4 (세트)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e-CIP홈페이지(<http://www.nl.go.kr/ecip>)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1005117)



03

조선 왕실의 일상 1

조선의 왕으로 살아가기



한국학중앙연구원 | 심재우·한형주·임민혁·신명호·박용만·이순구 지음

돌베개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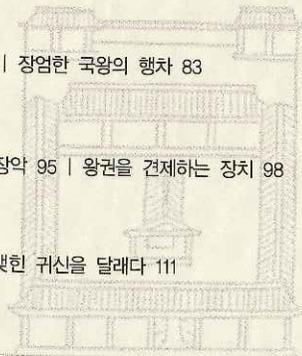
책머리에 · 5

서장 **조선시대의 왕** 심재우

- 1 왕에 주목하는 이유 · 16
- 2 조선시대의 왕과 왕권 · 22
왕은 어떤 존재인가 22 | 왕의 권한 25
- 3 호칭으로 본 왕과 왕실 · 30
왕의 다양한 호칭 30 | 알아두어야 할 왕실의 호칭 37
- 4 조선시대 정치 운영의 특징과 왕의 일상 · 39
조선시대 왕과 정치 운영 39 | 왕위 계승 양상 42 | 왕의 하루 45
- 5 왕을 어떻게 볼 것인가 · 49

제1부 **왕의 권위와 역할** 한형주

- 1 왕의 즉위와 정통성의 확립 · 56
다양한 왕위 계승 56 | 축제가 아닌 즉위식 59 | 아버지를 높여 자신을 드러내다 67 |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다 70
- 2 왕의 권위 표현 · 73
하늘 제사로 황제와 견주다 73 | 제후국과 다른 종묘 제사 77 | 장엄한 국왕의 행차 83
- 3 권력자로서의 왕 · 90
왕의 자존의식과 권력 행사 90 | 사냥과 정벌을 통한 군사권 장악 95 | 왕권을 견제하는 장치 98
- 4 백성과 함께하는 왕 · 104
가뭄을 자책하다 104 | 왕도 직접 농사를 지었다 108 | 원한 맺힌 귀신을 달래다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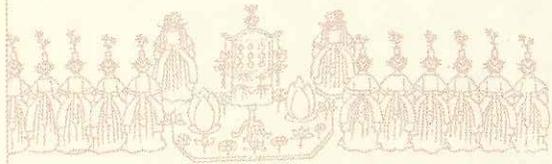


제2부 **국왕의 하루 엿보기** 임민혁

- 1 조선의 하루해가 열린다 · 118
- 2 학문으로 일과를 시작하다 · 124
국왕의 공부 방법 124 | 경연, 학문과 정치 토론의 장 130
- 3 신하들의 접견과 업무 보고 · 135
초회와 국왕 알현 135 | 비서실의 업무 보고와 비망기 143
- 4 국정과 민생을 돌보다 · 151
인사권의 행사 151 | 사은숙배와 하직숙배 157
- 5 수라와 조상 숭배 · 163
국왕의 수라 163 | 조상과 소통하기 166
- 6 국왕의 보호와 민국을 위한 고뇌 · 173
생기와 군호 결재 173 | 민국(民國)을 위한 고뇌 181

제3부 **왕의 사생활** 신명호

- 1 왕에게도 사생활이 있다 · 194
경복궁의 공간 구성과 왕의 사생활 194 | 왕의 사생활과 침전 200 | 왕의 부부생활과 중전 205
- 2 쫓겨난 왕들의 사생활 · 211
유교의 천벌 이론과 왕의 사생활 211 | 주색에 빠진 연산군 214 | 미신에 빠진 광해군 221
- 3 칭송받는 왕들의 사생활 · 228
요순을 모범으로 하는 왕의 사생활 228 | 모범적인 공부의 대명사 세종 232 | 모범적인 심성 수양의 대명사 정조 238



제4부 **한시漢詩로 보는 국왕의 문학** 박용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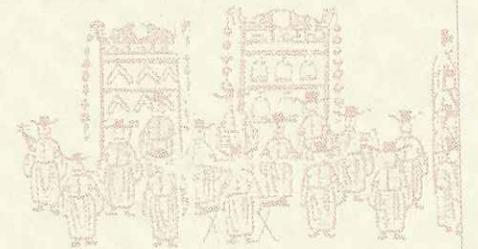
- 1 국왕도 시인이었다 · 250
국왕의 문학 작품을 실은 책 255 | 국왕의 시문에 나타난 공간 260
- 2 단종의 비애와 세조의 의지 · 264
빼앗긴 왕위와 단종의 시 264 | 대업의 의지를 표현한 세조의 시 269
- 3 성종과 월산대군의 우애 · 272
- 4 폭군의 시와 정서 · 277
연산군의 광기와 한시 277 | 광해군의 폐출과 한시 281
- 5 전환기 국왕의 시 · 285
선조의 문치文治와 시 285 | 숙종의 한시와 시대적 전환 287
- 6 국왕의 한시와 문학적 성취 · 292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영조의 시 292 | 전문 시인 정조의 한시 297

제5부 **국왕의 건강 관리** 이순규

- 1 왕은 왜 건강해야 하는가 · 306
- 2 왕실의 건강 관리법 · 310
내의원과의 310 | 음식과 보약 318 | 신체 단련, 운동 327
- 3 왕의 직업병 · 339
스트레스 339 | 왕의 질병과 죽음 351

부록

- 조선 왕실 세계도 · 364
- 조선의 왕릉 · 371
- 궁궐도 · 374
- 참고문헌 · 382
- 도판목록 · 385
- 찾아보기 · 389



3 호칭으로 본 왕과 왕실

왕의 다양한 호칭 우리가 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왕의 호칭이다. 조선시대에 국왕의 호칭은 매우 다양했는데, 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왕의 다양한 호칭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조선의 왕은 일반 사대부들과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의 아명(兒名), 세자 책봉시의 이름, 자(字)와 호(號)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외에도 국왕을 부르는 호칭은 다양하였다. 왕의 호칭은 얼마나 많았으며, 각각 어떤 뜻을 지닐까?

왕의 호칭 가운데 가장 익숙한 것으로 묘호(廟號)가 있다. 묘호는 일반적으로 '태정태세문단세'라고 했을 때 태조(太祖), 정종(正宗), 태종(太宗), 세종(世宗), 문종(文宗), 단종(端宗), 세조(世祖)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묘호는 왕으로 등극했을 때부터 부르던 이름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왕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거나 쓸 수 없었는데, 우리가 조선의 왕을 부를 때 흔히 이야기하는 태종, 세조 등의 호칭은 왕의 묘호이다.

묘호는 왕이 죽고 난 뒤에 붙여진 이름이기 때문에, 정작 당사자들은 생전에 들어본 적이 없다. 묘호는 왕이 사망하여 삼년상을



도12 종묘 정전 전경 ©김성철

마친 뒤에 죽은 왕의 신주(神主)를 종묘에 모실 때 사용되는 호칭이다. 묘호에는 왕의 재위 시 행적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으며, 두 글자로 지었다.^{도12, 도13}

왕의 묘호에서 조와 종의 차이는 무엇일까? 『예기』禮記에 보면 '공(功)이 있는 자는 조(祖)가 되고, 덕(德)이 있는 자는 종(宗)이 된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에 따라 평소 공이 큰 왕은 묘호에 조를 붙이고, 덕이 큰 왕은 종을 붙였다. 나라를 세운 국왕, 즉 창업 군주는 대개 '조'를 붙이고, 수성(守成)한 군주는 '종'을 붙였다.

그런데 원래 예(禮)의 원리에 따르면 중국 황제만이 '조'와 '종'의 묘호를 사용할 수 있을 뿐, 조선의 왕은 제후로서 '왕'이라 칭해야 했다. 즉 중국에서 내리는 시호(諡號)에 왕이라는 글자를 붙여 '모왕' 某王이라 칭하는 것이 예의 원리에 부합했다. 조선의 왕과 신하들은 이같은 내용을 잘 알면서도, 조선 국가와 왕권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중국에 대한 자주(自主)의식을 나타내기 위해 조와 종의 묘호를 사용했다.⁷

7_ 임민혁, 「묘호의 예제 원리와 조선의 수용」 『국사관논총』 104, 2004.

518 종묘 정전의 신실 ©김성철

종묘는 왕과 왕비,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공간이다. 종묘 정전에는 19실에 19위의 왕과 30위의 왕후 신주를 모셨으며, 영녕전에는 정전에서 조친(祫遷)된 15위의 왕과 17위의 왕후 및 의민왕태자懿皇太子的 신주를 모셨다. 신실의 구성은 왕과 왕후의 신주를 함께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다.



묘호는 왕의 생전의 공덕(功德)에 대한 평가였으므로, 그 평가가 국왕과 신하 사이에 서로 다를 수 있었다. 따라서 묘호는 국왕이 죽고 난 뒤에 신하들이 세 가지를 추천해 올려서 그중 한 가지를 다음 왕이 고를 수 있도록 하였다.⁸ 즉 최종 선택권은 역시 왕이 가졌던 셈이지만, 묘호 결정과 관련하여 왕과 신하, 정치 세력 상호간의 견해 차이로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27명의 국왕 가운데 태조(太祖), 세조(世祖), 선조(宣祖), 인조(仁祖), 영조(英祖), 정조(正祖), 순조(純祖) 등 7명만 묘호에 '조' 자를 썼다. 태조는 조선을 건국한 창업 군주라는 점에서, 인조의 경우는 병자호란의 위기를 극복한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어서 '조' 자를 썼다. 세조의 경우도 국가를 재조(再造)한 공덕을 높게 평가한 경우이다. 나머지 '조'를 붙인 네 명의 왕들은 원래 '종' 자로 끝나는 묘호를 썼다가, 나중에 '조'로 새로 추존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선조의 묘호는 원래 '선종(宣宗)이었는데 1616년(광해군 8)에 와서 다시 선조로 추존되었고, 영종이 영조로 된 것은 1889년(고종 26), 정종이 정조로 된 것은 1899년(광무 3)이다. 그리고 순조도 당초에는 순종이었는데, 1857년(철종 8)에 순조로 다시 추존되었

8. 신명호, 「조선시대 국왕 호칭의 종류와 의미」 『역사와 경계』 52, 2004.

다. 이처럼 묘호를 정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이를 정할 때 여러 논란이 있었으며, 앞서 보았듯이 당초 정한 묘호를 후대에 '종'에서 '조'로 바꾸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묘호를 '종'에서 '조'로 고친 사례가 네 차례 있었던 것은 '조', '종'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간 정치·사회적 배경 때문으로 보인다. 즉 선조, 영조, 정조, 순조의 묘호 개정 과정을 보면 당시 묘호에서 종보다 조를 높게 보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선왕의 공적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당초 정해진 묘호의 개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⁹ 즉, '종을 '조'로 고쳐야 권위가 높아진다는 생각이었다.

한편 조선의 왕 가운데 묘호가 없는 왕이 둘 있다. 바로 연산군(燕山君)과 광해군(光海君)이다. 연산군과 광해군은 모두 반정(反正)으로 생전에 쫓겨난 왕이었기 때문에 종묘에 신위를 모시지 않았고, 왕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의 호칭은 일개 왕자 신분에 붙이는 '군(君)으로 강등되었다. 이들의 치세 기록을 정리한 것을 다른 왕 대의 것처럼 '실록(實錄)이라 하지 않고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등 '일기(日記)라고 칭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정으로 축출된 연산군과 광해군은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여 묘호를 갖지 못한 반면, 왕위를 누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후에 왕으로 추존되어 묘호를 받은 이들도 있다. 이들은 모두 왕의 생부나 양아버지들이었는데, 성종의 생부 덕종(德宗), 인조의 생부 원종(元宗), 정조의 양아버지 진종(眞宗), 정조의 생부 장조(莊祖), 헌종의 생부 익종(翼宗)이 그들이다.

그런가 하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직계 4대조는 조선시대에 살아보지도 않았으나 조선의 추존왕(道尊王)이 되었으니 목조(穆祖), 익조(翼祖), 도조(度祖), 환조(桓祖)가 그들이다. 조선왕조 건국 직후 태조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과 자신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자신의 4대조의 이름을 추존하는 작업을 단행하였다. 이에

9. '종'에서 '조'로의 묘호 개정과 관련한 추이는 임민혁, 『왕의 이름, 묘호』, 문학동네, 2010, 92~97쪽 참조.

따라 조선 건국 원년인 1392년 11월에 이들을 목왕穆王, 익왕翼王, 도왕度王, 환왕桓王으로 명명하였으며, 다시 태종 대인 1411년(태종 11)에는 '왕'을 '조'로 고침으로써 목조, 익조, 도조, 환조가 되었다.

이밖에 조선 왕의 묘호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이 제2대 국왕 정종이다. 정종은 왕자의 난 이후 실세인 이방원李芳遠(1367~1422)의 뜻에 따라 조선 제2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그러나 2년 동안의 짧은 치세에 그쳤고, 재위 기간 동안 거의 실권이 없었기 때문에 후대 왕들에게 왕 대접을 받지 못하였다. 즉 조선시대 초기에는 정종을 과도기 집권자로 여기고 묘호도 올리지 않고 '공정대왕'恭靖大王으로 불렀으며, 한참 뒤인 1681년(숙종 7)에야 비로소 정종의 묘호를 올렸다. 위와 같은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묘호는 후대 국왕이 왕실의 정통성을 시의적으로 조절하는 과정에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국왕에게는 묘호 외에 시호諡號도 있었다. 시호는 왕의 사후에 생전의 업적을 평가하여 결정하였는데, 중국 천자天子에게서 받는 시호와 조정 신하들이 올리는 시호 두 가지가 있었다. 중국 천자에게서 시호를 받기 위해 조선에서는 중국으로 청시사講誥使라는 사신을 파견하였다. 왕이 죽고 나서 이 청시사가 중국 천자에게서 시호를 받아 오기까지는 거의 반년 정도가 걸렸는데, 중국에서 내려준 시호는 두 글자로 되어 있었다. 다만 대한제국기에 오면 고종이 황제를 칭하며 조선이 중국의 제후국 체제를 청산하면서 중국 황제에게서 시호를 받는 일도 없어졌다. 현재 종묘에 배향되어 있는 왕의 호칭에는 중국에서 받은 시호가 기재되지 않는다.

중국에서 받는 시호와 달리 신하들이 올리는 시호는 국상이 난지 5일 후 입관入棺을 하고 나서 의논해 올렸다. 중국에서 내려주는 시호는 두 글자이지만, 신하들이 올리는 시호의 글자 수는 이보다 많은 6자, 8자, 12자 등 일정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대부분 8자로 올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한편, 묘호와 시호 외에 왕의 존호尊號는 왕의 공덕을 찬양하기 위해 올리는 호칭이었다. 존호는 기본적으로 왕이 생전에 받는 이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왕이 승하한 이후 생전의 공덕을 새롭게 평가하여 올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를 '추상존호'追上尊號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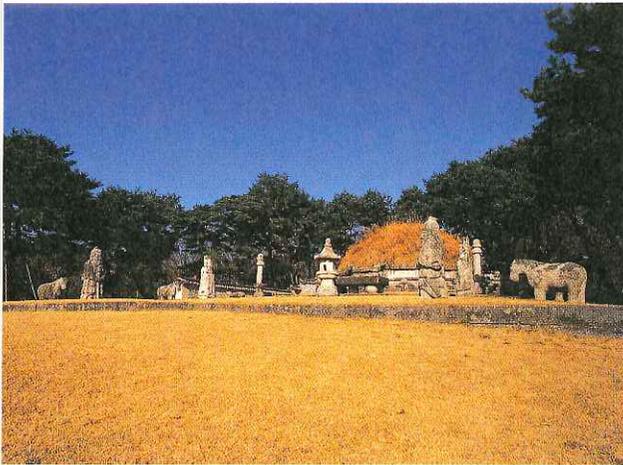
이처럼 조선의 왕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호칭을 모두 부를 경우 왕의 정식 호칭은 매우 길었다. 예를 들어 세조의 경우 '세조혜장승천체도열문영무지덕용공성신명예흠숙인효대왕'世祖惠莊承天體道烈文英武至德隆功聖明睿欽肅仁孝大王이 정식 호칭이었는데, 이 중 '세조'는 묘호, '혜장'은 명나라의 천자가 내려준 시호, '승천체도열문영무'는 계유정난으로 왕위에 오른 세조의 공덕을 기려 1457년에 올린 존호, '지덕용공성신명예흠숙인효'는 신하들이 올린 시호이다.

한편, 선조의 정식 호칭은 '선조소경정륜입극성덕홍렬지성대의격천희운현문의무성예달효대왕'宣祖昭敬定倫立極盛德洪烈至誠大義格天熙運顯文懿武聖睿達孝大王이다. 이 중 '선조'는 묘호, '소경'은 명나라에서 내려준 시호, '정륜입극성덕홍렬'은 1590년에 올린 존호, '지성대의격천희운'은 1604년에 올린 존호, '현문의무성예달효'는 신하들이 올린 시호이다.¹⁰⁾

우리가 왕을 묘호로 간략하게 호칭하지만, 이처럼 왕은 본명 이외에도 다양한 호칭을 가졌다. 살아생전에 받는 칭호와 죽어서 받는 칭호들을 모두 합하면 왕의 호칭은 보통 몇십 자를 넘는 것이 보통이었다.

왕이 죽고 난 뒤에 왕을 부르는 호칭으로는 앞서 살펴본 묘호, 존호, 시호 외에도 또 다른 것이 있었다. 왕의 혼령을 모신 곳, 왕의 무덤에 대해서는 각각 정해진 호칭이 존재하였다. 먼저 왕의 무덤을 '능'이라고 하였는데, 각 왕릉에는 능호陵號를 붙였다. 현재 서울 근교에는 조선왕조 왕과 왕비 등 왕족의 무덤이 많이 남아 있는

10_ 18세기에 간행된 『춘관지』春官志 권2, '시호묘호'諡號廟號에는 경종까지의 왕의 시호, 묘호, 존호가 상세하게 실려 있다.



도14, 도15 태조 건원릉 전경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소재. ©김성철

데, 이들 무덤에 붙인 이름이 능호이다. 대개 능호는 성종成宗 능인 선릉宣陵, 고종 능인 홍릉洪陵같이 두 글자인데, 태조 능을 건원릉健元陵이라 한 것처럼 세 글자인 경우도 있다.¹¹ 도14, 도15

능호도 묘호처럼 전왕이 세상을 떠난 뒤에 신하들이 복수의 이름을 추천하면 새로 즉위한 왕이 하나를 선택하였다. 19세기 순조의 능호를 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순조의 능호도 처음에 후보가 '인릉'仁陵, '헌릉'獻陵, '경릉'景陵 세 가지였는데, 헌종憲宗은 이들 중 '인릉'을 순조 왕릉의 최종 이름으로 선택하였다.

능호 외에 왕의 혼령을 모신 곳을 칭하는 이름도 있었다. 즉 왕의 장례를 마친 후 왕의 신주를 3년 동안 모시는 전각을 혼전魂殿이라고 하는데, 이 혼전을 칭하는 호칭을 전호殿號라고 하였다. 전호는 세 글자로 이루어졌다. 혼전의 명칭을 몇 개 소개하면, 창경궁에 있던 경종의 혼전을 경소전敬昭殿이라 하였고, 경희궁에 있던 영조의 혼전을 효명전孝明殿이라 했다.¹¹ 왕은 지엄한 존재인 만큼 왕에 대한 호칭 또한 이처럼 매우 다양했다.

11_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혼전 명칭은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60, 예고禮考 7 「혼전」魂殿 및 이현진, 「조선 왕실의 혼전」, 『조선시대 문화사(상)』, 일지사, 2007에 상세하다.